

ECONOMY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광주상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활력 이끈다

여수광양·부산항만공사 워크숍 항만안전 협력체계 구축 '맞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안전한 여수 광양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항만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상호 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각 공사 자회사, 여수청 및 부산청 항만안전점검관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안전평가 대응전략 공유, 안전보건 관련 규정 논의, 자회사 시설물 관리 및 현장 점검, 항만안전점검관 주안 부두현장 관리체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안전관리 시스템부터 현장에 있는 안전 벤치마킹을 통해 항만공사 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안전워크숍을 통해 항만공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항만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선박이 안심하고 찾아오는 여수광양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상생협약 확산사업' 설명회...고용창출 등 도모 장기근속 유도 지원금·인건비 부담 장려금 혜택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생산 및 부품·제조' 산업 활력 도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부터 구인기업의 직무, 장기근속 유도 등 관련 산업에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관계자 및 중장년 구직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구직 중에 있는 중장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공유했으며,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소통 자리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역 자동차산업의 이종구조 개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관계자 및 중장년 구직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광주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착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도약 장려금을 기업에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적

차 축소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최대 900만원)와 건강검진비(3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주상의 전무이사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및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 지역의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산업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http://www.gjcc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94/5898)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티구안·테라마르에 OE 공급

〈신차용 타이어〉

'고속주행 특화' 엑스타 PS71 SUV

금호타이어가 폭스바겐 대표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티구안'과 쿠프라 준중형 SUV '테라마르'에 신차용 타이어(OE)를 확대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티구안'은 폭스바겐의 대표 모델로

서 기동성과 연비 효율성, 높은 안전성을 갖춘 차량이며, '테라마르' 역시 쿠프라 모델 라인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기술과 실용성을 결합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235/55 R18 사이즈를 공급한다.

엑스타 PS71 SUV는 SUV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 보강 설계가 적용된 제품이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해 제동 및 마일리지 성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주행 조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 성능에 최적화 개발됐다.

PCR 규격부터 SUV 규격까지 폭넓은 차종에 적용 가능하며, 주요 EV 차종까지 대응 가능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

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 세단 파사트와 스코다 세단 수퍼브레드도 OE를 공급하고 있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은 "SUV 시장의 대표모델인 티구안과 신형강자로 떠오르는 테라마르에 OE를 공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금호타이어는 꾸준히 고성능·고인치타이어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OE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HANGUL
사람과 도시
크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음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빗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881등급 보호용 방호 울타리(설치위주)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를 방호울타리 전용(기준안락)
보도폭 확보 용이

빗물 저류 침투
·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 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분리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본 사 1공점) 전남 영광군 하교면 하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 무 소 2공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당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유엔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

HANGUL (주)한길산업
www.hngroad.co.kr

롯데 광주점, 수원 디저트맛집 '키키리베이커리'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7일까지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광산구 수원지구 유명 디저트 맛집인 '키키리베이커리'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 키키리베이커리는 '달걀 제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버터함 가득한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인 폭파·옥수수·에그마요 등의 베이글 류와 소금빵, 소보로, 파이, 카스텔라 등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남 치즈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수출길

도 세계 일류상품화 지원 성과...중앙아시아 시장 확장키로

전남도는 '2024년 전남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김 가공기업 맛나푸드씨가 개발한 '치즈김'이 베트남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정식 수출길에 오른다고 24일 밝혔다.

맛나푸드는 25일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보낼 치즈김 700여 박스를 선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00박스를 베트남으로 보냈다. 이번 수출은 지난 1월 베트남 현지 마켓 'V&H'에서 진행된 테스트 판매(200박스)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함평 동동면 동함평산단에 있는 맛나푸드는 도시락김을 비롯해 스테이크, 자반, 전장김, 김밥김, 김가루 등 다양한 김 제품을 전문적으로 가공·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전남 농림축수산물 4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 공모를 수상하는 등 우수수출 실적에 인정받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지정되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노미숙 맛나푸드 대표는 "베트남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자리잡도록 치즈김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겠다"며 "은·오프라인 판촉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수출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의 비교우위 농수산식품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김, 유자차 등 7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농수산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며 "특히 사업 성과를 평가해 우수 업체에 2년 차까지 홍보물 제작, 현지 마켓 입점, 판촉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